

코아스텨, 2018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96억 원 기록

[2018-08-16]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코아스텨(대표이사 김경숙)이 연결재무제표기준 올해 상반기 25억 8500만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.

또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95억 8197만원을 기록, 전년 동기 대비 5.3% 감소했다.

코아스텨 관계자는 "이번 적자발생 원인에 대해 자회사 켐온(비임상 CRO)의 정기 대수선이 금번 2분기에 도래하여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매출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"며 "현재 연구 1.2.3동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"고 말했다.

한편, 모회사인 코아스텨의 줄기세포치료제 뉴로나타-알 의 매출은 1분기대비 87.8%, 전년동기대비 43.9% 각각 증가했으며, 국내에서 치료중인 외국인 환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.

뉴로나타-알은 국내 시판중인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로서 이달 초 미국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주목 받은 바 있고, 지난 7월 개최된 제1회 2018 PACTALS (ALS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아시아 컨소시엄 국제회의)에 소개되어 국내외 신경과 전문의들의 호응을 얻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.